

여야, 국회 첫날 '기초연금' 정면 충돌

민주 "주무장관도 인정한 엉터리 연금" 공세

새누리, 진 장관 맹비판 속 사태진화 안간힘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거의 한 달만인 지난 30일 정상 운영에 들어갔지만,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으로 출발부터 파열음을 냈다. 더욱이 주무 장관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최종안에 반대 의견을 보이며 거듭된 업무부기 요청을 거부한 채 사퇴 의사를 꺾지 않다가 결국 낙마함으로써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연금 도입 방안보다 더 낫다며 공세 중단과 입법 협조를 주문하는 등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무 장관의 반대 의견 표명으로 기초연금 정부안이 '엉터리'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공세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모처럼 잡은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전면 개각과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원안 복원을 요구하면서

서 당의 화력을 기초연금 문제에 집중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장관이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도대체 박 대통령에게는 양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 없는 말로 황변하는 것 같다"면서 "박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에게 양심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공방을 거듭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해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공약사기'라고 본다"며 "주무부처 장관도 설득하지 못하는

데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의 의원은 "기초연금 수혜액이 최대 10만원까지 깎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층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진다"면서 "우리나라 복지 역사상 심각한 내용의 복지개편안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대통령이 복지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공약기계를 제시한 건 역대 최초"라면서 "취입한 지 1년도 안 돼 공약파기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맞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이영찬 차관을 상대로 기초노령연금법 논쟁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연습스

민주, 재보선 공천 '고민스럽네'

손학규 '구원등판론' 부상 불구 '위험부담' 당내 반론도 제기

10·30 재보선 공천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손학규 상임고문의 귀국으로 그동안 잠복해 있던 구원등판론이 수면 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애초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이 2개 선거구로 국한됐을 뿐 아니라 2곳 모두 새누리당 강세지역인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울릉도·거제도 지역을 두지 않는 분위기가었다. 화성갑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의 난

립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흐름은 있었지만, 지더라도 타격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서청원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데다 손 고문이 지난 29일 귀국하면서 출마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당이 필요로 할 때 뚝을 던져 왔다", "정치인은 선거로 말한다"는 등의 말로 여론을 남기면서 10월 재보선에

이긴다면 당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호재지만 반대라면 괜히 판판 키워대어 공세 드라이브에 제동만 걸릴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출마를 선언한 오일웅 현 지역위원장이 손 고문과 대선후보 경쟁을 벌였던 정세균 상임고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점은 계파별 이해관계와 얽혀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당 지도부는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공식히 공천심사를 마무리했지만 공천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평가 라운지

박지원 "안철수 독자세력화 유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30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연합이나 연대, 단일화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만약에 야권분열의 단초가 돼 오는 대선에서도 정권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와 전화인터뷰에서 "아직도 우리(민주당)는 안 의원에 대해 야권연합연대의 틀에서 후보단일화의 길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정의당과도 과거처럼 연합연대, 단일화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전날 안 의원의 싱크탱크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광주 및 전남북 지역의 실행위원을 발표할 때 대해 "민주당 기웃 세력이거나 또 민주당의 주변세력들이 대부분이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호남에서는 현재 안철수신당의 지지세가 강한 편이지만 그런 인물들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한다면 민주당이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용섭 "하남산단 주차문제 해결"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30일 안경정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 하남산업단지의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남산단의 주차문제는 지난해 1월 이용섭 의원이 입주 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한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입주업체



들의 가장 큰 고충거리로 지적된 사안이다. 이 의원은 "교부금에 의한 공공주차장 설치로 산단 주차난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한 차량통행 환경이 조성돼 하남산단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순 "영산강 녹조시설 제기능 못해"

환경부가 10억원을 들여 영산강 등 4대강에서 운영 중인 녹조 제거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지난 30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류제거 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조류발생의 주원인인 클로로필a의 처리효율은 낙동강을 제외하고 목표량 대비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동강 달성보는 목표치의 73.5%를 달성한 데 비해 영산강 승촌보는 28.9%, 금강은 0.6%에 머물렀다. 6월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녹조 찌꺼기는 79t으로 애초 목표로 제시했던 445t 대비 30.4%에 그쳤다. 주 의원은 "조류제거시설이 운영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효율이나 성능, 운영적 인 측면 모두 기대 이하"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원전, 한달에 한번 꼴 멈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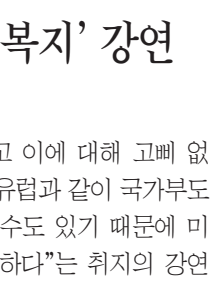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고장으로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고장으로 정지된 경우가 60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전별로는 고리원전이 25건(신고리 11건 포함), 한빛원전이 15건, 월성원전이 11건(신월성 4건 포함),



한울원전이 9건이었다. 고장의 원인은 계속제어 결함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 결합 18건, 인적 실수 11건, 기계 결합 9건, 외부 영향 2건 등이다. 최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 등 세 기관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해 매달 한번꼴로 원전이 멈춰서고 있다"며 "원안위의 원전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무성 의원 '국가 재정건전성과 복지' 강연

파르게 증가하고 이에 대해 고삐 없이 가다가는 남유럽과 같이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 김 의원은 재정파탄을 선언한 그리스 사태를 예로 들며 "보편적 복지도 좋지만, 복지 재정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 야 하고,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의 복지모델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한가람회는 청소년 보호 육성과 영·호남 화합 등을 기본취지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편백경침경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경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경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음성카운터](주방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경용 발목펌프(주방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사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빌리지

선운공인중개사 010-6166-0013 / 010-2475-0933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총정로5가 버스도모점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철 9억6천
- 북구 유동 상업지역 대지411㎡(124) 2층건물 99평 공시지가 2억8200 매도3억
- 합평 영업 철되는 여관과 접한 2층 주거지 땅 504평, 땅에는 생활주택철 대출4억 매도10억5천
- 북동 고용원 앞 상업지64평 원룸철합 1억6천
- 계림동구수동건물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한의원·사무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로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 등 적합 9억5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12억가능, 대출3억 매도7억8천
- 매도, 목포대학 인근 원룸 84개 허가난 땅 476평 목포대학 확장으로 사업성 좋음, 대출2억8천 매도5억6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솔로시티중도·엘도라도 가능길, 바다가 보이는 빌딩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휴게시설에 적합, 30평22세대 41평5세대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30평은 1억3900만원 41평은 1억8500, 임대도 가능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대로변 주택전시관 1층167㎡(50) 보증금5천에 월200선 임대, 조건은 조정가능
- 임대, 송촌동 (구)정군관사에 신축중인 호텔급 시설의 생활주택 10평형 기존 전세 1000에 월40선에 임대함, 10월초 첫 입주 지하철 생활역에서 6분 거리
- 임대, 송촌동 기도건설의 주택전시관70평 PC방, 미장원, 찻집, 식당 등 다용도 사용가능 분할임대도 가능, 보증금 5천에 월200선 가능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기도건설 전속중개사무소입니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임인가)
근린시설임할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양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당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선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복지 대지,전 215㎡ 매매5천만(조정가)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념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